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봄 학기동안 린츠예술학교Kunstuniversitat Linz에서 Plastische Konzeptionen/Keramik을 공부했습니다. 좋기도, 싫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또 다른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자유롭게 작업하도록 교수님들께서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린츠라는 도시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고 독일어권 나라에서 행정적인 부분으로 혼자 많이 애도 먹었지만, 외국인으로 혼자 생활한다는 것의 무게와 함께 행복한 기억도 많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알려주었다면 좋았을 것들, 덜 헤매고 덜 고민했을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바뀌거나 정확하지 않게 기록된 것들이 있을 테니 참고만 해주세요. 불안해 하거나 긴장하기보다는,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린츠Linz에 대해서

린츠는 오스트리아에서 3번째로 크고 ober Austria의 수도이며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울산 같은 느낌입니다. 도시 전체가 프라하처럼 고풍스럽다기보다는, 공업도시답게 합리적인 형태의 건물들이 대다수로 거리 풍경도 깔끔하고 현대적입니다. 또 수도 비엔나에 비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매우 심심한 도시예요. 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운 매력이 있고, 국가 중상부에 위치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수도 비엔나까지 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등 다른 도시로 여행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다뉴브강이 시내 중앙을 가로지르고, 은근하고 작은 아름다움이 곳곳에 있어 정이 들었던 도시입니다.

Ars Electronica Center라는 매우 유명한 디지털·미디어아트 센터가 학교 건너편에 위치하고, 매년 9월 이곳에서 세계 최대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래서인지 린츠예술대학 또한 뉴미디어 분야가 유명하며 과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용어는 독일어지만, 영어로 소통도 무난히 가능합니다. 젊은 층은 대체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2018-2019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비엔나가 꼽혔던 만큼, 오스트리아 전반에

걸쳐 치안이 좋고 린츠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편입니다. 알프스산맥이 이어져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적이 생활에 스며있으며, 안정된 국가의 분위기로 인해 사람들의 성향도 온화하고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난민을 꽤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인종차별 문제가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스스로없이 내밀어주는 도움의 손길에 고마움을 더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자

대사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나, 발급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대사관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보통 방학 기간이 겹치면 얼마 없는 예약석이 금방 만석이 됩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오스트리아 비자센터'(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 따로 예약 없이 가서 신청하시면 약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고, 저는 정확히 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비자 만료 후 90일 간 관광목적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자센터나 대사관 측에서 학기 기간에 딱 맞춰 발급해준 경우, 귀국 날짜가 비자가 만료된 이후라도 오스트리아 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EU국가들이 각각 쉥겐조약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Flix Bus나 기차를 이용해 오스트리아 외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도, 비자 만료 후엔 불법체류가 되어버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여행하려면 비자 기간을 가능한 한 넉넉히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비자센터 측에서 학기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비자를 발급해주셔서 귀국 항공편보다 비자가 일찍 만료가 되었는데, 독일을 경유하는 왕복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공항 측에서 귀국 시 독일 경유가 불가하다고 하셔서 비EU 국가인 러시아 경유 귀국편으로 다시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비자 만료로 학기 이후에 프랑스, 독일, 체코 등의 국가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수-학생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서로 이름으로 부르거나 장난을 치는 등 학생을 동료로서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개념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전공이 나뉘었으나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업하기도 하며, 원하는 과의 강의를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학기 중이라도 필요하거나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해서 수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수강취소도, 출석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학점도 후하게 주시는 편입니다. 10주 이상을 꼭 채우는 수업도 있고, 몇 회에 걸쳐 세미나 식으로 운영되거나 필드트립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강의 형태가 있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의 중간에 들어온 교환학생에게 어떤 과정을 따르길 요구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풀어놓는 느낌이라 방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Plastische Konzeptionen/Keramik 과는 기본적으로는 재료에 대한 부분을 깊게 다루고 있었고, 따로 유약 재료를 모아놓은 Lab, 도자 프린팅 기법, 몰드 메이킹 등의 강의와 시설이 갖춰져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재료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주 필드트립을 나가 현장이나 선생님들,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교류하는 등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진행되지만, 외국인 학생이 참석하면 영어로 진행이 되거나, 선생님이 따로 영어로 설명해주시거나, 다른 학생이 영어로 전달해주는 식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어 A1, A2 수업이 제공됩니다. 기초적인 단어들과 회화 문장들을 배웁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단시간에 독일어를 잘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단, 외국인 학생들끼리의 교류와 오스트리아의 문화, 역사, 관습 등을 알려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시내 가이드를 해주시거나 가까운 명소에 나들이를 가고, 선생님 자택에 초대하여 티피컬한 식사를 대접해주시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식 식당이 따로 있진 않지만, 학생회가 운영해 학생들이 식사시간에 간단한 음식을 파는 bar가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원하는 만큼 돈을 넣는 식입니다.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모이거나 음악을 틀기도 하고, 영화 상영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 과마다 자율부엌이 있어, 학생회가 냉장고에 학생회비로 식재료를 채워넣습니다. 이 공간에서 점심, 저녁을 요리하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작업실은 명확하게 지정돼있기보단 대충 안 쓰는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데, 학생들과 조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거예요.

학교에서 정확히 어떤 배움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크고 작은 즐거운 기억과 새로운 경험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외로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주거

교환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주거시설은 단연 기숙사입니다. 또 교환학생 발표 후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 중 하나도 기숙사 신청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보통 대학 자체에 기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설 기숙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월세 이하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고, 공용 식당을 이용하지만 화장실이 구비된 개인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 학교와 멀지 않은 위치에서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첫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시청에 방문하여 주거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입주 시 기숙사 직원이 작성해주는 등록서류와 여권, 재학증명서 등을 갖고 Rathaus 1층에 가서 등록을 하면 거주

등록증을 줍니다. 이 증으로 바로 같은 층에서 Active pass(저렴한 가격의 시내 트램, 버스, 지하철 무제한 한달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Dr. Karl Grunner Haus에서 지냈습니다. 학교와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 다른 교환학생 및 유학생들도 많이 거주했던 곳이라 공공 식당이나 주변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기에 좋았어요. 또 다뉴브 강변이 가까워 산책이나 조깅하기 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놀거리가 부족해 강변에 불꽃축제를 종종 개최하거나, 한시적으로 놀이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에서 이벤트를 많이 기획하는데, 이런 재미들도 쏠쏠합니다.

세탁기 사용이 약간 까다로운데, 입주할 때 세탁카드를 주거나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집 앞의 Tabak & Trafik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카드에 충전해서 쓰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결제로 크레딧을 충전하는 방식이 있지만, 간단하게는 기숙사 바로 앞 Tabak & Trafik에서 세탁 카드와 일정 금액을 주고 크레딧을 결제합니다. 여기서 바로 카드에 충전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적혀있는데, 세탁실에 있는 스테이션에 세탁카드를 삽입하고 영수증에 적힌 번호를 입력해야 충전이 완료됩니다. 또 세탁카드마다 고유번호가 있어, 해당 카드에만 해당 일련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지내다 보면, 시에서 온, 독일어로만 채워진 공문 같은 것이 우편함에 꽂힙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미뤄두면 안됩니다... 바로 **페렴 검사**인데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어느 날 아무 시에 뜬금없이 누군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무려 경찰 두 명이 경찰차로 집 앞에서 시청까지 연행하듯 페렴 검사 시설로 모셔갑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긴 하지만 당황스럽고 바쁠 때라면 곤란할 수 있으니, 서류와 여권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편한 시간에 방문해서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

매달 월세는 현지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됩니다. 또 통신요금도 자동이체되게 하는 쪽이 편리합니다. 학생 은행 계좌는 Bawak P.S.K(우체국 겸 은행) 같은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와 여권, 거주등록증 등을 갖고 가면 학생 계좌를 만들어주고, 일주일쯤 후에 우체통에 체크카드가 배송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PIN(비밀번호) 설정인데, 사용자가 설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은행 측에서 설정해줍니다, 은행 앱을 깔아 보완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은행에 가면 알려주거나 우편을 통해 PIN이 적힌 편지를 보내줍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를 떠날 때 은행에 들러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약간의 해지 수수료가 붙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은행에서 발급하는, 국제 학생증과 겸하는 해외 출금 수수료 혜택이 있는 카드와 Master 카드 두어 장을 예비/비상용으로 가지고 갔고, 여행 중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미리 따로 보관해뒀던 체크카드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출금 수수료 혜택이 있

는 카드를 여러 장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A1, 3(drei) 등이 있고, 저는 A1을 이용했습니다. 선불요금제가 있지만(prepaid) 이 경우에 오스트리아 내에서만 데이터 사용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 다달이 요금을 내는 계약을 하면 EU국가들 내에서 모두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직접 대리점에 가서 통신비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계좌로 연결해두면 훨씬 편리합니다. (참고: 모나코는 EU국가가 아닙니다... A1유심 곳은 채로 비 EU국가 가서 인터넷이라도 한번 켜면 로밍 폭탄을 맞아요...! 흑흑...)

유럽은 카카오톡처럼 'WhatsApp'이라는 채팅앱을 주로 사용하고 전화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는 쓸 일이 별로 없어, 저는 데이터만 지원되는 요금제를 이용했습니다.

이 계약도 오스트리아를 떠나기 전에 해지해야 하는데, 또 주의해야 하는 점은 해지하려는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대리점을 통해 고지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떠나기 직전에 해지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해지한 다음 달의 통신비를 납부해야 합니다.(흑흑) 한국에서 그 요금을 납부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라요.

오스트리아의 인터넷은 한국에 비해 인터넷이 조금 느린 감이 있고 지하에서 가끔 안 터지기도 하지만, 무료 와이파이 구역이 많고 불편을 느낄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또 한국에 비해 통신비가 약간 저렴한 느낌이었어요.

생활

오스트리아의 물가는 체감 상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건비가 비싼 복지국가답게 식당에서는 기본적인 음식의 값이 비싸고 생수가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음료를 거의 필수적으로 시켜야 하고 팁도 어느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식물가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 장보는 비용은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들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식당, 마트, 드럭스토어 등에 거의 모두 비건 옵션 제품들을 갖춰 선택지가 넓습니다.

여러 마트 브랜드가 있는데, Billa보다는 Lidl 등이 더 저렴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편의점 같은 시설이 없고 술집을 제외하면 8시 이후 마트 포함 모든 상점이 문을 닫으며, 일요일은 일부 카페나 식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쉬기 때문에 미리 생필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생활용품(그릇, 냄비 등)은 Kika(이케아st), Kik(저렴하고 질이 좀 떨어져요) 같은 시내의 생필품 매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Ikea는 시내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전에 교환학생 오셨던 분과

연락이 닿는다면 양도받는 것이 제일 저렴할 것 같아요.

유럽은 모든 수도에 석회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처음 가면 달라진 수질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합니다만, 한국 상수도의 우수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많이 마시는데, 생수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헤어 제품 등을 현지 것을 사용하면 모발이 석회수로 뻣뻣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또 화장품, 영양제 등이 질이 좋고 저렴해 기초화장품 등을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수하물 부담이 적습니다.

교통

린츠 시내 교통은 메인 스트릿을 다니는 트램, 버스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내 교통시설은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Actiev-Pass로 저렴하게 한달 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1장, 여권, 거주 등록증, 재학증명서 등을 갖고 시청에 가면 사진을 붙여 금방증을 발급해주고, 이 증에 적인 일련번호를 이용해 길거리의 티켓 판매기에서 다음 달 교통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처럼, 'OEBB Scotty'라는 교통 앱을 사용해 대중교통 시간, 경로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OEBB는 오스트리아의 국철입니다. 만 26세 이하 청년에게 제공하는 Vorteils-card Jugend가 있는데요. OEBB 홈페이지나 역에서 19유로로 이 카드를 구입한 직후부터 1년간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EBB 말고도 Westbahn이라는 회사의 기차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 결제 말고도 Paypal을 이용하면 앱으로도 편하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어요!

Flix Bus는 유럽 국가 간, 도시간 운행되는 버스입니다. 플릭스 버스를 이용하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하며 여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도착시간을 지키지 않고 많이 지연되는 등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경우가 잦고, 탑승장소도 꼭 버스 터미널이 아닌 길가인 경우도 있어서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할 수 있고, 역시 Paypal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를 찍거나 요금을 따로내지 않고 그냥 탑승합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은 검표원이 불시에 표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Active-pass 또는 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유럽의 날짜 표기방식은 '일 / 달 / 년도'인데, 이를 헷갈려 만료된 Active-pass를 갖고 있어도 무단으로 간주됩니다.

어느 날, 운 나쁘게 검표원에게 걸린다면 신상을 물어보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벌금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EG에 가서 납부하지 않으면 사설 벌금 관리 기관으로 넘어가 하루단위로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 벌금, 요금 등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램은 편리하지만 특히 위험하기도 한데, 도보와의 간격이 좁아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를 여러

번 목격했을 만큼 자주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접근하는 소음도 크지 않아 건물목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쓰다보니 TMI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낭비되는 체력과 시간, 감정을 아껴 더 의미 있는 경험들로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지 못했고, 제가 깨지 못했던 편견들로 작업을 충분히, 즐겁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온 기간 동안 가장 평화롭고, 즐겁고, 자유로웠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중한 게 보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학교 밖에서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느끼고 배운 것이 더 많았지만, 이것 또한 교환학생에게 기대되는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고 행운이 많은, 행복한 파견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